

제 9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독특성과 신학적 의미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개의 족보(아담 자손의 족보와 노아 자손의 족보)가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하면서도 구속사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역사성’ 보다는 성경저자의 의도에 맞춰 재구성한 족보로서 ‘신학적 의도’가 훨씬 강하게 드러나는 족보입니다.

1.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개요

-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전 구속 역사를 압축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① ‘세계’(genesis)는 ‘족보’를 가리킵니다.

② ‘시작’, ‘기원’을 뜻하는 헬라어 ‘게네시스’는 히브리어 ‘톨레돏’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톨레돏’은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라는 뜻이며, 이것이 ‘책’(biblos)이란 단어와 함께 쓰였음을 볼 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③ 세계사의 중심 축, 역사의 구심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입니다.

2)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②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체결하신 (BC 2091, 아브라함 75세) 이후 약 2,087년 만에, 다윗 언약 이후 약 1천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 것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 여자의 후손

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믿음의 혈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며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되십니다.

③ 예수 외에 모든 사람은 인간의 생식방법을 통해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로서, 모두 죄인입니다(롬3:10).

롬 3:10-12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4) 전체가 42대이며,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① <제 1기>=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 총 1163년
 -아브라함의 출생 : 주전 2166년
 -다윗의 예루살렘통치 직전까지 :주전 1003년

② <제 2기>=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 총 406년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시작 : 주전 1003년
 -바벨론의 제 2차 침공으로 여고나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 주전 597년

③ <제 3기>=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 총 593년
 -바벨론의 제 2차 침공으로 여고나(여호야긴 왕)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 주전 597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 주전 4년

2. 누가복음 족보와의 비교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시까지의 족보이며, 총 42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족보의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족보의 초역사성과 신학적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1) 누가복음 족보와 다른 족보들과의 비교

①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동일함(창세기 5장 족보 / 눅 3:36-38)

창5:3-5	:6-8	:9-11	:12-14	:15-17	:18-20	:21-24	:25-27	:28-31	:32
--------	------	-------	--------	--------	--------	--------	--------	--------	-----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눅3:38	:38	:38	:37	:37	:37	:37	:37	:36	:36

②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는 거의 동일(창 11 족보 / 눅 3:34-36)

창 11:10 -11	:12-13	:14-15		:16-17	:18-19	:20-21	:22-231	:24-25	:26	:26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셈	아박삿	가 이 난	살라	헤버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눅 3:38	:36	:36	:35	:35	:35	:35	:35	:34	:34	:34

<가이난에 대한 문제>

- 성경 무오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을 때 35세가 맞다.
창 11:12 아르박삿은 삼십 오세에 셀라를 낳았고
- 희년서(The Book of Jubilees) 8장은 아르박삿의 아들을 가이난으로 기록
“아르박삿의 아들 가이난은 성장해서 도시로 갔다. 거기서 그는 주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점성술 등을 행하는 죄를 범하였다.”
- 누가복음 족보에는 장자로 소개되어 있다.

가이난은 장자였지만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 장자의 권리가 차자인 셀라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③ 이삭에서 다윗까지 동일함(마 1::2-6 / 눅 3:31-34)

마1:2	2	2	3	3	3	4	4	4	5	5	5	6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아니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눅 3:34	34	33	33	33	33	33	32	32	32	32	32	31

2) 다윗부터 요셉까지의 차이.

다윗 이후 요셉과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는 과정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마태복음 족보)과 나단(누가복음 족보)으로 갈라졌다가 야곱(마태복음 족보)과 엘리(누가복음 족보) 이후 요셉으로 다시 합쳐진 후 예수님이 탄생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윗	솔로몬 23명 ...	야곱(마 1:16)	요셉(마리아)
----	-----	--------------	------------	---------

	나단 37명	엘리(눅 3:23)	
--	----	---------------	------------	--

① <마태복음 족보>

마 1: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② <누가복음 족보>

눅 3:31 그 이상은 멜레야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맛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 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③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

대상 3:5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리하니 시므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3. 두 족보의 만남

1) 마태와 누가복음 족보 둘 다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요셉은 두 족보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눅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2) 왜 요셉은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가?

① 야곱은 요셉의 혈통적인 아버지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② 헬리는 요셉의 법적 아버지

‘그 아들’을 의미하는 헬라어 정관사 ‘*tou*’가 ‘아담과 하나님’(눅 3:38) 사이에 쓰여 영적인 부자관계를 나타내 주는데, 요셉 앞에는 없고 ‘헬리’ 앞에만 쓰였다(눅 3:23-24). 이를 통해 누가는 이 족보가 ‘헬리의 족보’이며, 요셉과 헬리의 관계는 혈통적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를 요셉의 (혈통적) 아들로 ‘여겼으나’ (as was supposed) 실상은 요셉의 혈통적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다.

눅 3:23-24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

은 맞닿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3) 헬리와 요셉 사이의 법적 관계는 무엇인가?

헬리는 외동딸 마리아만을 낳고 아들이 없이 죽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후 헬리의 상속자로서 법적 아들이 되었다.

민 27:78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버지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①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딸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민 36:6-7 ...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②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유다지파 사람이다.

두 족보가 다윗 이후 1,000년 동안 분리되었다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다시 합쳐지게 되었다.

4) 두 족보의 만남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

① 부계와 모계혈통 모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함
삼하 7: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②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는 약속을 성취함(창 3:15)

-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기록(여자).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 누가복음 족보도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증거함(여자).

눅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이는 예수가 헬리의 딸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것을 증거함.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 나시게 됨.

눅 1:34-35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